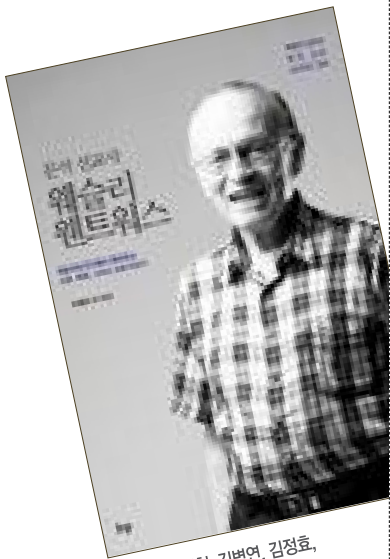


책 소개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

한국 기독교학문세계의 비밀 주머니

한 사람이 있다. 누구인지 모를 이분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석학들이 너도나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관에 관심 많던 내가 읽은 책들 속에 자주 등장하던 이름,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분, 다양하게 불리지만 누구에게나 친구이자 멘토이며 한국 기독교학문의 핵심고리인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다.

십여 년 전, 그분의 칠순에는 세계관동역회에서 『사랑해요, 웨슬리』(예영커뮤니케이션)를 만들어 헌정하였고, 팔순을 넘긴 웨슬리 선생님의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문서선교사 웨슬리 Wentworth』는 그분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 단 열여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 속의 기고자들은 지금보다는 아주 탱탱한 청년의 모습으로 처음 만난 웨슬리를 회고하며 갈 길을 다짐한다.



손봉호, 김민철, 김병연, 김정효, 박상진, 박리주, 방선기, 배종석, 송인규, 신국원, 양승훈, 이국윤, 장수영, 최예정, 최태연, 홍병룡 저
IVP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

그분의 오랜 친구들은 학문에 목말라 하던 청년의 때에 그를 만나 이제는 각 처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는 종종 재미있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은, 웨슬리 선생님의 등장에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돈다. 잠시 후, 웨슬리 선생님은 가볍지만 헤어질 듯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저 기다린다’. 그러면 모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종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숙제가 주어진다. 이후 세미나 등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 어김없이 그곳에서 나타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너의 공부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보다 훨씬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면서도 한국말을 못하신다는 거다. 그런 웨슬리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

하시는데 한마디, “필요 없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낮잠 잘 곳을 찾아 가방이나 겹옷을 접어 ‘어디서든’ 눈을 붙이신다. 음료를 드리면 마다하고 오직 물을 찾으시고, 식당에서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편의점 샌드위치를 즐기시며, 체크남방에 매시준 한결같은 패션을 추구하는 이분에게 뭐라도 챙기거나 선물을 드려도 한결같은 대답, “필요 없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 가장 최소한의 것만 사용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검소한 삶을 보며, 우리는 도대체 살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강박한지 짚린다.

사역은 이렇게 하라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50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나 교회를 세운 것도, 후원하는 조직도 없이 본인만 벌고 저축하신 것이 전부다.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갖고 있던 책의 일부도(동역회에 있던) 처분(?)했다.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국내외 그리스도인 학자들을 찾아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고 그냥 주신다. 그렇게 전달하고 또 기다린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다. 누구의 인정도 칭찬도 관심 없다. 기념회에서 그가 말한 말처럼 사역의 포인트인 ‘keep going’ 하며 말이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사역으로 한국에 ‘세계관’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세계관으로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적’ 학문의 지평이 열렸으며, 이에 기초한 ‘

기독교적’ 교육과 수업이 시작되었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지금에 이르렀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기독교적 대응운동을 한 웨퍼에게는 ‘비밀주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의 아내인 이디스 웨퍼란다. 한국의 기독교 학문세계의 비밀주머니는 바로 웨슬리 선생님이다.

연약함, 우리시대에 배워야 할 유일한 것

우리가 잊고 지낸 삶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말하면서도, 내심 유명해지고 잘 살길, 성공하길 바란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소망한다. 웨슬리 선생님의 삶은, 부족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진짜 필요를 잃어버린 우리가 잊고 지낸 우리의 민낯이고 연약함이다. 복음전파에는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이름만 있지 않았다. 이름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 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소리 없이 지금도 변함없는 행보로 도전하는 꼭 필요한 한 사람, 웨슬리 선생님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 속에는 그분의 친구들이 각 분야에서 꼭 읽길 바라는 추천 도서목록이 선물로 있다. 마치 그분의 삶처럼. ☺



신효영 건국대학교 시각멀티디자인학과 졸업,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문화교육을 공부했다(M.ed), 아가페출판사 편집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 편집인이다.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크게 일낼 날만 기다리며 여전히 꿈꾸고 있다.